

“자유롭게 창의성 발휘하며 선진 과학기술 접하고 싶어요”



(3) 목포대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박기훈 씨

한국전력공사 3차례 연구과제 참여하며 두각 보여
美 버클리대 논문 발표 후 국내외 학회서 논문 발표
지역연구기관 젊은 연구자들에 참여 확대 필요

“운 좋게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들의 연구 주제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연구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너무도 자유롭게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반면에 우리는 지나치게 트렌드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목포대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1학기에 재학중인 박기훈(28)씨는 전자·전기제품의 사용주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제품을 수리해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이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연구 초기이며, 조만간 해외 유학도 준비중이어서 주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가 외국유학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여서 되도록이면 선진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접해보고 싶어요.”
그는 지난 2018년 한국전력공사의 ‘지능형 배전 설비 기반 차세대 능동배전망 설계 및 제어기술’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어 ‘양방향 계통 연계에 위한 송전용 5% 주파수 변동 대응형 회전형 변압기(VFT) 기초 기술 개발’, ‘한전 변전설비 자산관리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Functions 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잇따라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년 6월 미국 버클리대에서 AI(인공지능)과 자동차 배터리와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뒤 대한전기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3차례 논문을 내는 등 바쁜 일상을 보냈다.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실험 장비와 기기가 크게 부족하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도 부족합니다.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개발기관의 시설, 프로그램이 지역 대학원생들에게 공개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씨는 같은 연구를 하는 동료 선배들이 훌륭한 연구주제와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에 가로막혀 포기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검증된 인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제라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롤모델을 설정하고 따라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대학원에서 한국전력 연구원에 다니는 형을 롤 모델로 정하고, 지금은 제 지도교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 성장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처음부터 막연하게 출발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롤 모델을 정하다보면 그 롤 모델과 비슷하게 성장한 저의 모습을 보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대 오리 ‘호덕이’ 캐릭터(위)와 최근 자연부화한 새끼 8마리를 돌보고 있는 호덕이. <호남대 제공>

호남대 웹툰캐릭터 ‘호덕이’ 새끼 8마리 탄생

지난 30일 발견해 보호조치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홍보 마스크트이자 웹툰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호덕이’를 탄생시킨 오리 6형제가 최근 캠퍼스 안 호대마당 숲에서 8마리의 새끼를 자연 부화했다.

호남대는 학생들과 소통강화를 위한 눈높이 홍보의 일환으로 교내 상지관(3호관) 앞 연못에 2017년 동자를 튼 오리 6남매를 소재로 호남대의 호(湖)와 오리의 영문 표현 덕(Duck)에서 첫 글자를 딴 ‘호덕이’ 캐릭터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오리 6형제는 평소 연못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며 학생들은 물론, 선운지구 주민 등 학교 방문객들의 사랑을 독차지 해왔다. 한 달여 전부터 한 두 마리가 보이지 않아 사랑설까지 나돌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난 30일 오전 7시 40분께 호대마당을 지나던 축구학과 학생들이 새끼 8마리를 거느린 오리를 발견하면서 자연부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오리 새끼들은 이날 장맛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며 비에 젖어 심하게 떨고 있는 상태로 발견돼 교직원들에 의해 1호관 실내로 옮겨져 각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인사

- ◆북구청
 - ◇5급 승진
 - ▲건축국장 류창선
 - ◇5급 진보
 - ▲체육관광과장 신봉식 ▲도시재생과장 이한민 ▲건설과장 황광주
- ◆기상청
 - ◇4급 진보
 -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용상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조익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승진
 - ▲양념특작부장 김진섭 ▲식품수출부장 고혁성

- ▲시장지원부장 홍성호
 - ◇진보
 - ▲농식품거래소 부부장 운영배 ▲지속가능경영실장 전기찬 ▲식품진흥처장 오형완 ▲급식지원처장 배민식 ▲e커머스사업처장 손용규 ▲전략기획부장 김광진 ▲성과관리부장 최일근 ▲정책금융부장 강형모 ▲수출기획부장 한순철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진보(본부장급)
 - ▲경영기획본부장 이민호 ▲운영지원단장 권영모 ▲기금운용본부장 양광규 ▲기금사업관리본부장 백남일 ▲전파자원관리단장 하수용 ▲기술자격본부장 김규현 ▲서울본부장 손기철 ▲부산본부장 전완표 ▲전남본부장 문상선

- ◇전보(팀장급)
 - ▲경영혁신팀장 김호영 ▲기금성과평가팀장 김진국 ▲전파기획팀장 이봉규 ▲전파방송진흥팀장 김영욱 ▲전파정보사업팀장 임창용 ▲전파자원개발팀장 이순훈 ▲전파자원정비팀장 이방일 ▲공공주파수팀장 조영필 ▲전파관리팀장 유선준 ▲포항사업소장 김갑진
- ◇신규 보임(본부장급)
 - ▲복서출본부장 천운철 ▲충청본부장 박정근 ▲경북본부장 문광민 ▲강원본부장 장영규
- ◇신규 보임(팀장급)
 - ▲성과관리팀장 전근표 ▲재무회계팀장 이상웅 ▲빛마루사업관리팀장 강명승 ▲전북본부 사업팀장 전은경 ▲강원본부 사업팀장 박준영 ▲여수사업소장 김용

광주 서석중·고 유당학원 이사장에 최재훈 남화토건 부회장 취임



광주 서석중등학교 등에 따르면 유당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최재훈 남화토건 부회장을 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최 부회장은 1일 취임식을 갖고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최 부회장은 서석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최상욱 현 이사장의 큰아들이다. 최상욱 이사장은 1973년부터 유당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광주 서석고 관계자는 “이사장 임기가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몸이 안 좋으셔서 큰아들이 이사장을 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찬란한 내 인생(재)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25	25 아침마당	00 KBS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30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끈대인턴(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재) 55 UHD 숨터	00 영혼수선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55 뽀빠뽀 뽀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00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지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동물교실(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재)			
00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MBC네트워크특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00 5 MBC 뉴스 2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0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전국 TOP 10 가요쇼 오프닝 다시보기(재)
00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민선 7기 특별대담 <이윤섭 광주시장>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리다
30	30 기막힌 유산	30 제보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출사표	30 끈대인턴	
0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50 라디오스타 1~2부	00 트롯신이 떴다
30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0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더 캡처	20 M드라마 합합결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45 피피루 안전특공대
07:15 출동! 슈퍼윙스	12:30 EBS 마스터	18:00 생방송 토티! 보니 하니
07:30 뽀빠뽀 뽀로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형사 가제트
07:45 로보가 폴리	13:50 EBS 초대석	19:30 최고! 호기심딱지
08:00 똥똥똥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장터 열전-아찔하고 유쾌하고, 태극>
09:30 페파 피그	15:25 레인보우 루비	21:30 한국기행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즐거워라, 여름들이 3부
10:30 한국기행(재)	16:10 픽시(재)	여서라 낙원이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똥똥똥 유치원(재)	22:45 극한직업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일(음 5월 11일 乙巳)

<p>36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48년생 내적인 실속을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2년생 금돈도 안푼이 있느니라. 84년생 무형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96년생 점점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갑안하고 입하라. 행운의 숫자 : 23, 77</p>	<p>42년생 소탐대실 하지 말라. 54년생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게 되리라. 66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78년생 굳이 자름질을 찾지 말라. 90년생 어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02년생 가지런한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2, 90</p>
<p>37년생 망심하다가 가는 급락을 면치 못 할 것이다. 49년생 강력한 세력에 휩쓸려 가는 성적이다. 61년생 확실한 자기 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73년생 불완전한 오소가 해소 될 수도 있겠다. 85년생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97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리라. 행운의 숫자 : 06, 89</p>	<p>31년생 철저히 살만하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43년생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다. 55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국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다. 67년생 허황된 일이니 빨리 포기 할수록 유리하다. 79년생 용처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절실하다. 91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79</p>
<p>38년생 앞전 데 맞친 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50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 되겠지만 결과는 알할 것이다. 62년생 응용을 잘 해야 쉽게 타결할 수 있다. 74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86년생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98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0</p>	<p>32년생 때가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4년생 지성으로써 시종일관한다면 궁극적으로 성취하리라. 56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 68년생 추이를 보고 진퇴를 결정 하자. 80년생 거주장소라면 두 말 없이 청산하라. 92년생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 62</p>
<p>39년생 장애물이 있다면 치우고 가는 것이 낫다. 51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흉사를 비껴갈 수 있다. 63년생 지나치다보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75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87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에 주목하자. 99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이 중단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 95</p>	<p>33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45년생 길사도 연결되고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57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기운이 붙어야 할 때다. 81년생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을 버려도 된다. 93년생 필수 불가결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울며대서 애를 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1, 61</p>
<p>40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52년생 회자정리 하는 법이다. 64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관찮을 것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76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88년생 일도양만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00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7, 92</p>	<p>34년생 어렵겠다. 46년생 의미 있는 하루가 전개 될 것이다. 58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 붙여라. 70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답이 보인다. 82년생 대의를 도모하자. 94년생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87</p>
<p>41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만 하느니라. 53년생 길인을 만나리라. 65년생 성과가 배가 되리라. 77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 89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라. 01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8, 86</p>	<p>35년생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47년생 처음부터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라. 59년생 탄력적이려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71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83년생 발상이 막연하다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95년생 자료를 잘 살피라. 행운의 숫자 : 36, 66</p>